

“가슴부터 뜨거워지는 이름... ‘대~한민국’”



22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 입성한 붉은 악마 원정대와 교포들이 현지 펍에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한국대표팀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민영씨 제공>

광주 FC 서포터즈 전민성·정민영씨 브라질 원정 응원

“세계인들에 ‘붉은 악마’ 친숙...국적불문 축구로 하나돼”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열정적인 붉은 악마도 예외는 아니다. 3일간의 고행 끝에 결전의 무대 포르투알레그리를 찾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을 달렸다. 어느 때보다 더 애뜻한 이름 ‘대한민국’이다.

K리그 광주 FC의 서포터즈로 활약해온 20살 동갑내기 친구 전민성·정민영 씨도 붉은 악마로 브라질을 찾았다. 이들이 전해온 브라질 분위기는 한마디로 ‘세계의 축제’다. 축구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이들이 축제의 현장을 만들고 있다.

축제를 위한 3일간의 기다림이었다. 이들이 비행기에 오른 것은 19일 오전 11시(이하 한국시간). 타기를 거쳐 20여 시간의 비행 끝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한 이들은 다시 13시간 차로 이동한 뒤에야 포르투알레그리 숙소에 짐을 풀 수 있었다. 22일 오전 1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3일간의 일정에서 3일을 이통에 쏟아부었지만 이마저도 이들에겐 가슴 설레는 길이었다.

전민성 씨는 “축구팬으로서 가장 큰 축구 축제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다. 부모님께서도 넓은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오라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셨다. 타기에서 잘 몰랐는데 브라질에 오니 월드컵 분위기가 훨씬 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내년 군입대를 앞두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는 정민영 씨에게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축구팬들과의 만남이 즐겁다. 정씨는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과 사진을 찍고 함께 응원가를 부르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교포도 계시고 이곳 교포들도 한데 뭉쳐서 대한민국을 외쳤다”고 말했다.

최근 브라질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현지 분위기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 ‘축구’라는 공통점이 통했다. “축구팬들끼리는 통하는 무엇인가 있다”고 말하는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열정적인 애니지를 널리 알고 있다. 붉은 악마는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응원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브라질 현지에서도 붉은 악마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다.

전씨는 “대부분이 붉은 악마인 줄 알아 보신다. 가끔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면 ‘한국’이라고 알려드리고 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응원 가도 부른다”고 말했다.

축구로 하나가 된 사람들. ‘삼바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 작은 지구촌이 만들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 골 더 넣으면...클로제, 전설이 된다

월드컵 개인 통산 15호골...호나우두와 나란히 ‘최다’

그라운드를 밟은 지 2분 만에 그는 특유의 ‘공중제비’ 세리머니와 함께 ‘현재 진행형 전설’이 됐다.

‘전차 군단’ 독일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미로슬라프 클로제(36·라치오)가 월드컵의 살아있는 역사로 우뚝 섰다.

클로제는 22일(한국시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카스텔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후반 26분 2-2 동점을 만드는 골을 터뜨려 월드컵 본선에서 15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그는 호나우두(브라질)가 보유한 월드컵 본선 최다 득점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8살 때 독일로 이주, 2001년부터 독일 대표로 활약한 클로제는 높은 점프를 바탕으로 한 헤딩 능력과 탁월한 골 감각을 갖춰 독일의 주포로 성장했다.

이번 대회에 앞서 월드컵 본선에는 세 차례 출전해 14골을 넣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3골을 퍼부은 것을 시작으로 헤딩으로만 5골을 넣어 세계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했고, 자국에서 열린 2006년 대회에서도 5골을 꽂아 득점왕에 올랐다.

30대에 접어들어 4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4골을 폭발하며 견재함을

과시, 호나우두의 기록에 한 골 차로 다가갔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월드컵 직전 그는 이미 독일에서는 최고의 골잡이로 이름을 올렸다.

이달 초 아르메니아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통산 132경기 만에 69호 골을 기록, 게르트 뮐러(62경기 68골)를 넘어 독일 국가대표 최다 골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어 월드컵 본선에서도 출전하자마자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클로제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요아힘 뢰브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으나 이날 후반 24분 교체 선수로 투입돼 자신의 20번째 월드컵 본선 경기에 나섰다.

독일이 가나의 아사모아 잔에게 역전

골을 허용하고 1-2로 끌려가기 시작하자 뢰브 감독은 선제골의 주인공 마리오 괴체를 빼고 클로제에게 해결사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2분 만에 클로제는 코너킥에 이어 베네딕트 헤베데스가 헤딩으로 떨어진 공을 반개같이 미끄러져 들어오며 밀어 넣어 월드컵 최고의 공격수로 우뚝 섰다.

독일 팬들은 환호했고, 12년 전과 변함없이 ‘공중제비’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이제부터는 그의 공중제비가 더 나올 때마다 월드컵 역사가 새로 쓰인다.

경기를 마치고 클로제는 “공중제비를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성공했다”고 너스레를 떨며 기쁨을 표현했다. /연합뉴스



“레전드라 불러다오”

월드컵 G조 조별예선 2차전 독일-가나전에서 가나가 한때 2대1로 앞서나가며 대어를 잡는 듯했으나 월드컵 통산 15호골을 기록한 클로제의 동점골로 2-2 무승부가 되었다. 클로제 전매특허 ‘덤블링 세리머니’.

역시! 메시

이란과 2차전 추가시간 결승골

1-0...아르헨티나에 16강 선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원발이 아르헨티나를 2014 브라질월드컵축구대회 16강에 올려놓았다.

메시는 22일(한국시간)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F조 조별리그 2차전 이란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려 1-0 승리를 이끌었다.

아르헨티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1차전에 이어 승리하며 F조 1위(승점 6)를 지켜 최종전 결과에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결정했다.

메시는 2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뜨리며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F조의 나이지리아는 오프사이드 오심 논란 속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1-0으로 꺾고 조 2위(승점 4)에 올랐다.

나이지리아는 전반 29분 피터 오뎀핑기(스토크시티)의 결승골로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16년 만에 승리를 챙겼지만 심판의 석연치않은 판정 때문에 깔금하지는 못했다.

보스니아는 0-0이던 전반 21분 즈베즈단 미시모비치(구이저우)가 아크 부근에서 문전에 있던 에딘 제코(맨체스터 시티)에게 볼을 찰라쳤고 제코가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TV중계 화면상으로도 제코는 나이지리아 최후방 수비수 뒤에 위치했지만 심판은 오프사이드를 선언,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스니아는 이 판정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2패를 기록,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G조 경기에서는 독일과 가나가 공방을 벌인 끝에 2-2로 비겼다.

독일은 승점 4(1승1무)로 조 1위를 지켰고, 가나는 승점 1(1승1패)로 조 3위에 자리했다. 독일의 스트라이커 미로슬라프 클로제(라치오)는 후반 26분 2-2를 만드는 골을 터뜨려 역대 월드컵 본선 최다득점 타이인 15호 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스코어 보드

콜롬비아	2:1	코트디부아르	
우루과이	2:1	잉글랜드	
일본	0:0	그리스	
이탈리아	0:1	코스타리카	
스위스	2:5	프랑스	
온두라스	1:2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1:0	이란	
독일	2:2	가나	
나이지리아	1:0	보스니아	